

교회 역사를 우리 자신에게 비유함

활동 A

복음을 전파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박해는 진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40). 주님께서는 이미 다수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을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었다. 질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에 찬 형제들은 기꺼이 순종하여 나부를 떠나 봉사했다. 그 결과, 주로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받고, 교회에 가입했으며, 나부로 왔다. 그들은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니파이전서 3장 7절과 교리와 성약 3편 1절을 읽고, 이러한 구절이 위에 언급된 선교 사업의 예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본다.

활동 B

상호부조회를 조직함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짓는 동안, 몇몇 자매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남성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신발과 바지, 셔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영감을 받아 그들은 여성 그룹을 조직하였고,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옷가지들을 제공했다. 당시의 여느 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규약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들은 조셉 스미스의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를 제출했다.

[그것을 본] 조셉은 그것이 매우 잘 작성된 규약이라고 칭찬했다. 선지자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분은 그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전하십시오. . . . 저는 신권의 방식을 좇아 신권에 따라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 (“성도들”, 제1권, 448쪽)

1842년 3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회원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교리와 성약 58편 26~28절을 읽으면서, 상호부조회를 설립하도록 이끈 영감받은 여성들과 이 구절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본다.